演 題 抄 錄

— 1 —

당뇨병성신증의 임상적 연구

전북의대 내과

박창훈 · 하종영 · 박성광 · 강성귀

1971년 Marks등은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애 때문에 사망한 경우가 8.9%라고 보고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당뇨병성 신증에 관한 조사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어 1986년부터 1990년 12월까지 5년간 전북의대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총 11,619 환자 중에서 당뇨병 환자로 진단되었던 예가 722명으로 전체 환자의 6.21%을 나타내고 있었다.

저자들은 상기 동기간의 당뇨병 환자중 추적 관찰이 가능한 247명의 환자 중에서 단백뇨(+)이상이고, 혈청 creatinine 1.5 mg% 이상인 당뇨병성 신증을 보였던 98(39.7%)을 대상으로 몇가지 소견을 얻어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년령 및 성별분포는 남자 56명, 여자 35명으로 남녀비가 1.6 : 1이였고 50~60대가 전체 환자의 61.3%로 가장 많았다. 당뇨병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기간은 6~10년 사이가 전체의 32.8%이고 21~25년의 경우는 5.1%이였다.

당뇨병 발생 년령이 29세 이하가 16예, 30세에서 39세까지 24예로 40세 이하에서 총 47예로 전체의 40.8%이였고, 이중 2예는 신이식을 12예는 CAPD 그리고 5예는 혈액투석중에 있었다. 40세 이상에서 당뇨신증을 발견한 예는 58예로 전체의 59.2%이였으며, 이중 2예는 신이식 8예는 CAPD 그리고 8예는 혈액투석중에 있었다. 전체 98예중 13예(13.3%)는 원인불명으로 사망하였다.

— 2 —

혈액투석시점의 당뇨병성 만성신부전증의 임상상

충남의대 내과

이순구 · 정민수 · 신승훈
이강욱 · 신영태 · 김영건

혈액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의 원인으로는 만성사구체신염이 가장 많았으나 근자에 당뇨병에 의한 만성신부전증이 증가하고 있고, 다른 원인질환에 의한 경우보다 조기에 혈액투석을 시작하게 된다고 한다.

이에 연자들은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1985년 1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6년동안 혈액투석을 처음 시작한 265예의 만성 신부전증 환자중 당뇨병성 만성신부전증 30예를 대상으로 혈액투석 직전의 임상상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다.

1) 6년간 혈액투석을 처음 시작한 265예중 당뇨병성 신부전증이 30예로 11.4%를 차지하였다. 당뇨병성 신부전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1990년에는 33.3%를 차지하였다.

2) 당뇨병을 진단받은 후 평균 13.3년후에 혈액투석을 시작하였고, 혈액투석 시작시의 평균연령은 대조군에서는 40.6(±3.67)세였으나 당뇨병에서는 55.7(±10.94)세로 당뇨병에서 많았다($p<0.01$). 성별에는 의의있는 차이가 없었다.

3) 혈액투석을 시작한 동기로는 폐부종등의 fluid overload에 의한 경우가 두군 모두에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요독증상, 고칼륨혈증, 심막염, 심한 산혈증 순이었다.

4) 혈액투석 직전에 검사한 혈중 크레아티닌치는 대조군에서 14.1(±6.38) mg/dl였고 당뇨병에서는 8.7(±4.82) mg/dl로 당뇨병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당뇨병성 신부전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치가 5